

‘호랑이 정글’ 6 대 3 무한 서바이벌



김원섭 (35·우투좌타) 180cm 75kg 386타수 117안타 (0.303) 3홀런 61타점 8도루 60득점 실책 0	김상현 (33·우투우타) 186cm 80kg 116타수 30안타 (0.259) 4홀런 17타점 1도루 17득점 실책 0	김주찬 (32·우투우타) 183cm 85kg 435타수 128안타 (0.294) 5홀런 39타점 32도루 62득점 실책 2	이용규 (28·좌투좌타) 175cm 70kg 491타수 139안타 (0.283) 2홀런 37타점 44도루 86득점 실책 4	신종길 (30·우투좌타) 183cm 85kg 83타수 4안타 (0.157) 1홀런 2타점 5도루 10득점 실책 1	나지완 (28·우투우타) 182cm 95kg 398타수 109안타 (0.274) 11홀런 56타점 7도루 40득점 실책 0
--	---	---	---	--	---



‘LCK포는 없다?’
 2013 시범경기가 개막하면서 프로야구 9개 구단의 전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기분 좋게 2연승을 달리고 있는 KIA에게도 시범경기는 마지막 틀을 완성하는 시간.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경쟁 시간이기도 하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10일 타선의 구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김상현의 자리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LCK포는 없다’와 같은 말이다.
 KIA 타선의 대명사는 ‘LCK포’다. 이범

KIA 외야 이용규·김주찬 선점 속 치열한 경쟁

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을 일컫는 말이지만 선 감독은 김상현의 ‘K’에 물음표를 던졌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열한 외야경쟁에 따른 나름의 즐거운 비명이다.
 올 시즌 KIA 외야는 정글이다. 외야의 터줏대감 이용규가 중앙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기동력으로 무장한 김주찬이 한자리를 빼앗으면서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김상현·나지완이 ‘파워’를 앞세워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김원섭은 수비와 기동력으로 이들을 견제하고 있다.
 선발 자리를 놓고 주전급 선수 3명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페이스로는 나지완이 한발 앞서 있다. 여기에 선 감독이 수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팀 200도루를 올 시즌 과제로 던져놓은 만큼 호타준족의 김원섭도 V11의 중요한 카드다. 지명타자 한 자리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

들 중 한 명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 대접전. ‘LCK포’가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상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지난해와 달리 경쟁에 따른 ‘LCK포’의 위기이기 때문에 KIA에는 즐거운 고민이다.
 여기에 빠른 발로는 프로야구계에서도 손에 꼽는 신종길도 앞선 2경기에서 6타수 5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외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외야의 행복한 고민에 비해 내야와 불펜

SUN ‘LCK포 보장 못한다’ 김상현도 선발 자리 불안 최후의 결정 16·17일 두산전

은 선 감독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1루수 최희섭-2루수 안치홍-유격수 김선빈-3루수 이범호로 내야가 탄탄하게 짜여 있지만 남은 선수층 탓에 부상이라는 변수에는 취약한 구조다.
 특히 불펜은 KIA의 아킬레스건이자 선 감독이 추구하는 ‘지키는 야구’의 걸림돌이

다. 선발요원이었던 앤서니를 마무리에 배치하는 초경수를 던지며 불펜 구성에 골몰하고 있지만 스프링캠프에서 뚜렷한 카드를 찾지 못했다. 가능성을 넘어 확신을 줄 수 있는 불펜진 찾기가 이번 시범경기의 최우선 과제이다.
 선 감독의 테스트이자 선수들의 최후의 생존 싸움은 SK(12·13일)·두산(16·17일)과의 홈 경기에서 마무리된다. 이후 원정 6경기는 본경기를 위한 조율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라 치열한 생존싸움의 1차 결과는 오는 19일부터 전개될 원정 경기에서 드러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기록 강습회 야구팬 열기 ‘후끈’

40명 야구역사·기록법 등 배워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등 후원

작은 네모 칸 안에 야구를 담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9·10일 조선이공대에서 제 2기 야구기록 강습회가 열렸다. 이번 강습회에는 엄마 손을 잡고 온 11살 최연소 수강자, 10대 초·중·고 야구선수, 40대 후반의 직장인과 주부, 80대 어르신까지 40명이 참가해 주말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광주·광양에 살고 있는 KIA팬은 물론 서울에서 먼길을 달려온 삼성팬, 한화팬 등

하는 대전시민까지 응원팀과 나이,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이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한결같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계속된 강행군에도 34명의 수강자가 끝까지 학구열을 발휘하며 기록지와 수료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광주시야구협회 나훈 회장의 광주야구발전사 강의로 시작된 강습회는 야구의 역사, 규약 및 용어설명 등 기본 단계에서부터 기록법, 기록규칙 심화과정으로 이어졌다.
 강의실을 가장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강의는 ‘실제 기록’. 무동경기장에서 진행된 KIA와 한화의 시범경기를 TV로 시청하면서 야구의 묘미를 만끽한 이 시간은 가장 머



지난 9·10일 광주에서 열린 제2기 야구기록강습회의 참가자들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기록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봉현(23·조선이공대)씨는 “야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용어가 있는 줄 몰랐다. 안타하리에도 우·중·좌전 안타 등 다양하게 표기하기도 하고 몰랐던 야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홍고 야구부 신입생인 강희진·유예찬은 “이를 동안 책상에 앉아있었는데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웃으며 “야구를 하면서도 모르는 기록과 룰도 있었다. 야구를 더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는 기록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시야구협회(GBA)와 한국야구기록연구회(SKBR)가 주최했으며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KIA 타이거즈, 조선이공대학교, 복지법인 효자병원, 광주일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선수협회장에 서재응
 KIA 타이거즈의 오른손 투수 서재응(36)이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를 이끌게 됐다. 각 구단 선수협회 대표와 대의원 27명은 11일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새 회장으로 서재응을 추천했다.
 전임 회장 박재홍(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1월 말 은퇴한 이래 현재 선수협회 회장은 공석이다.
 KBO에 등록된 선수들의 투표 결과 총 455표 중 140표를 받은 서재응은 “선수들의 사를 반영해 선수협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싱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